



순창군은 24일 팔덕면 월곡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17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신규지구 사업시행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순창 새뜰마을사업 본격화

월곡지구 마을주민 70여명 참석 설명회 진행 16억원 투입 농촌취약지역 생활인프라 구축

순창군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순창월곡지구 새뜰마을 사업의 본격적 시작을 알렸다. 군은 24일 팔덕면 월곡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신규지구 사업시행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업시행 설명회에는 마을 주민 대다수가 참석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으며 서화중 농촌추진계장은 새뜰마을사업 추진배경 및 취

지, 사업내용, 추진일정, 자부담금 등 사업 전반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고 질의 응답 시간도 가져 주민들의 참여하는 상황식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새뜰마을 사업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정비를 추진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지하

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실시해 69개마을이 선정됐다. 1차·2차 서면평가와 3차 대면평가 PPT보고 및 질의응답 등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 3월 월곡마을을 포함 35개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재해위험지구 도랑정비, 마을출입터정비, 파리, 모기 퇴치 포충기 설치 등 4개 분야에 16억 여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비가 74%정도를 차지해 지방재정 부담이 없는 알짜 사업이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상황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의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남대 정상화' 위한 행보

남원시의회 의원들,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나서

교육부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서 수용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에서 남원시민들이 원하는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에 나섰다. 지난 7월 20일 남원시민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직후인 24일, 시민들의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열원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이석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화비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남대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후, 유성열 교육문화체육관광 위

원회 위원장을 면담한 의원들은 낙후된 지리상 및 전북 동남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인재 양성에 서남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전북 도민과 남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서남대 정상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열원을 전했다. 또한, 남원, 순창, 임실 지역구 국회의원 이용호 의원을 찾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남원 시민들의 의견이 국회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이석보 남원시의회 의장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라도 찾아가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이런 노력들이 모아질 때 무더위속 서남대 정상화라는 단비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국회 방문 소감을 밝혔다. 한편, 24일부터는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남원시의회 의원들의 24시간 천막 노숙 릴레이 시위가 예정되어 있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남원시의회 노력은 한여름 땀약발 아래에서도 계속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기업체, 양방향 소통 '파란불'

관내 중소기업 방문 시설견학·간담 등 현장 생생목소리 귀담아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방문하여 시설견학, 기업인 간담, 근로자와의 격의없는 소통채널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그 첫걸음으로 24일 광치산단단지 내 (주)재성을 방문하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원 구내식당에서 근로자와 오찬을 가지면서 남원시에 바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방문한 (주)재성은 1982년에 창립하여 설비 증설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이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불우이웃과 독거노인 등 소

지역 소식통

찾아가는 영농 사랑방 '눈에 띄네' 순창군, 여름철 길잡이 역할 특출

순창군이 188개 마을회관 및 모정을 찾아가 영농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해 바쁜 영농철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88개 마을 3천여명을 대상으로 현장 영농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업인상담소장과 지도사가 강사로 나서 작물 재배 관리법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벼와 콩, 고추 등 여름철 작물 생육관리법 및 지역별 주요 작목과 관련한 기술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188개 마을 모정과 마을회관 등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영농 사랑방'은 그동안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었던 소농과 고령농, 거동이 불편한 농업인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이들에게 영농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실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농업 현장을 방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구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영농 교육은 꾸준히 추진해 순창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에서 선정된 9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남원시,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 개최

남원시(시장 이환주)에서는 관 주도도의 행정에서 주민주도의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남원!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를 열고, 선정된 9개팀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 우리마을 공동체 창안대회'는 관 주도도의 행정에서 주민주도의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한 시범사업으로 지난 7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신청한 총 13개팀 중 심사를 통해 9개팀을 선정하고 선정팀을 대상으로 7월 21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사업으로는 '외골목 해돋이'라는 주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와 함께하는 경제장터 및 버

벗짚환원 고품질쌀 생산기반 육성

일년중 가장 무더운 삼복 더위속에서도 농촌 뜰내에서는 벼 용·배수 관리와 병해충방제에 열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법맞춤은 고품질 쌀생산에 필요한 농경지 지력증진을 위한 벗짚환원으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벗짚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벗짚은 반드시 농경지에 재 환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토양미생물 환경 조성과 유기물 함량 증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전 농업인들의 동참해야 할 필수 실천 사항이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화학비료 사용과 축산 조사료 활용에 따른 벗짚 수거 등으로 지력이 저하되는 점을 감안 농경지 지력증진과 유기물 함량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2017년도 벗짚환원사업 추진 계획을 지난 7월중순에 읍·면·동에 통보 8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한 농가로 사업비 범위내에서 농가당 0.1~3ha까지 벼재배 농경지에 벗짚을 잘게 잘라 가을갈이를 할수 있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장 신부(Didier l'Serl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